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일관계

배 정 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베 전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2006년 9월 26일 정치지도자로 등장하였다. 아베 내각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해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아베 내각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두고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전개를 경직되게 하였다. 일본은 제5차 3단계 6차회담에서 2·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고, 납치문제에 집착한 대북정책을 탈피하지 못한 채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도 파국으로 끝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은 경직성으로 인해 2·13 합의 이후에도 납치문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었고, 북한의 대일 극심한 감정적 불신·갈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와 관련,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교육책이 무산되면서,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고, 북·일 양국은 거의 최악의 갈등상태를 노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정치적 고려 수사, 조총련의 심각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는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전략적 재료를 활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즉, 일본측의 대북 흥정 카드(bargaining chip)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러므로, 2007년 7월 18~2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북한은 북·일 양자협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북·일 양측의 관계진전을 위한 노력은 2007년 9월 5~6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는 납치문제만을 다루었던 지난 3월의 베트남 하노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하였다.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렸지만, 파행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전략적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일관계는 아베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무기한 연기 및 2007년 10월 13일이 만기인 대북 경제 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 결정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계 진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9월 12일 아베총리의 사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의 국내 정치화 등으로 경직되어 있는데, 이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대북정책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현재 자민당 총재의 유력 후보자인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총리로 등장할 경우, 다소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에서 대화 중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는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제의 환경이 조성되고, 6자회담에서 성실한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 불능화 조치가 전개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이 나타날 경우, 이는 일본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차기내각은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되고, 일본 국민들은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대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중요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의 신뢰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의 불능화와 북·미관계의 진전, 즉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 대상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이르면,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도 성숙된 단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